⟨7-3⟩

알루미나 분산 지르코니아 세라믹스에서의 균열전파
Crack Propagation in the Alumina-dispersed Zirconia Ceramics
김민정, 이종국, 이은구, 김 환*
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,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*

20 vol%의 알루미나를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에 첨가시켜 알루미나/지르코니아 복합재료를 제조한 다음 알루미나 입자크기에 따른 균열전파 거동과 이들이 복합재료의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산된 알루미나 입자는 대부분 지르코니아 입계에 존재하였으며, 분산시킨 알루미나의 입자크기에 따라 소결체 내 지르코니아 및 알루미나 입자크기가 변화하였다. 이러한 두상간의 입자크기 변화는 기지상의 응력유기상변태와 균열전파 시 균열편향효과에도 영향을 미쳐 파괴인성 변화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상의 입자크기가 균열전파모드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고, 이들 인자와 파괴인성 간의 연관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

<7-4>

자체 강화형 알파상 질화규소의 R-curve 특성
R-Curve Behavior of *In-situ* Toughened α-SiAlON Ceramics

<u>Joosun Kim</u> and I-Wei Chen[†]

KAIST 재료공학과, [†]Univ. of Pennsylvania

In-situ toughened α -SiAlON ceramics were obtained using the seeding technique and the controlled heat-treatment. R-curves of single phase Y- and Ca- containing -SiAlON have been measured. They range from flat ones for fine grain ceramics to pronounced rising ones when large elongated grains are present. The highest toughness measured reached 11.5 MPam^{1/2} over a crack extension of about 1000 μ m. The highest toughness is comparable to that of tough β -Si3N4 ceramics, and it associated with a bimodal distribution of rod-like grains.